

일제강점기 도리사 승려 김경환의 독립운동

김일수*

• 목 차 •

I. 머리말

II. 1910년대 한국불교와 승려 김경환

III. 도리사 승려 김경환의 3·1운동

1. 중앙학림의 3·1운동

2. 김경환의 해인사 지방학림 3·1운동

IV. 승려 김경환의 한족회 독립운동자금 모금 운동

1. 중국 남만주 독립운동과 한족회

2. 한족회 독립운동자금 모금 운동

V. 맺음말

* 경운대학교 벽강교양대학 교양교육학부 교수.

© 『大覺思想』 제42집 (2024년 12월), pp.73-98.

한글요약

이 글은 일제강점기 도리사 승려 김경환의 독립운동과 그 역사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경환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선산의 도리사에 출가하여, 승려 생활을 하던 중 도리사의 본사인 해인사에서 운영 하던 지방학림에서 불교를 익혔다. 그는 3·1운동이 전국으로 파급될 때, 해인사 지방학림 승려들과 함께 1919년 3월 31일 해인사 3·1운동을 일으켜 3·1운동의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그는 복역을 마친 후 해인사로 다시 돌아가 승려 생활을 이어가던 중 중국 남만주에 기반을 둔 한족회의 독립운동 자금 모금 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경상북도의 주요 사찰을 찾아다니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도리사 승려 김경환은 전민족적 항일운동인 3·1운동에 참여하고, 1920년대 초 독립전쟁노선으로 전환해 나간 독립운동가였다. 특히, 3·1운동에 이어 독립전쟁노선으로 전환해 나간 불교계 독립운동의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불교계의 독립운동이 국외로 나간 한국 독립운동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도리사 승려 김경환의 독립운동이 한국독립운동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주제어

도리사, 승려, 해인사 지방학림, 해인사 3·1운동, 한족회, 독립전쟁노선

I. 머리말

한국사회가 근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교계는 조선 시대 성리학적 질서에서 왜곡된 한국불교의 전통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더욱이 그러한 과제는 근대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런데, 그러한 한국불교의 역사적 과제는 서구의 한반도 침탈과 일본의 한국 침략에서 새로운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다. 곧 한국불교가 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정립하기도 전에 서구 기독교의 한반도 전래, 또 일본과 조선총독부를 배경으로 한 일본 불교의 한반도 공략을 동시에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한국불교의 역사적 과제는 서구 기독교와 일본 불교의 한반도 ‘이식’ 내지 ‘일본화’를 극복해야 했다. 그 가운데서도 일본 불교의 문제는 한국불교의 전통 회복과 근대 불교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물론, 불교계가 직면한 역사적 과제는 한국사회의 그것, 곧 1910년 8월 ‘한일병합’ 이후 해방을 쟁취해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 역사와 불교계의 역사적 과제는 큰 틀에서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동안 한국 불교계의 3·1운동 전후 시기 독립운동 연구 성과는 어떠했을까. 우리 역사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그 간 진행된 다양한 독립운동의 물줄기를 한군데로 모아 3·1운동을 폭발시켰다.¹⁾ 3·1운동 전후 불교계의 독립운동 연구는 1969년 동아일보사 주관의 3·1운동 50주년 기념 논총에 실린 「3·1운동과 불교계」(안계현)의 논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논문은 김법린의 회고를 중심으로 쓰인 글이다. 이후 1990년대에 근대불교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불교계의 3·1운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²⁾ 한용운을 비롯한 인

1) 김일수, 「3·1운동 전후 독립에 대한 인식과 독립운동」, 『한국사학사학보』 38, 2018, pp.68-70.

2) 김순석, 「3·1운동기 한국 불교계의 역동성과 현재적 반성」, 『불교학연구』 62, 2020, pp.165-166.

물 중심의 연구와 지역별·사찰별 3·1운동 연구가 생산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 독립운동에서 차지하는 불교계의 위상이 본격적으로 규명되고 있다.³⁾ 그 가운데 한용운·백용성·백초월·김법린 등을 통해 3·1운동과 그 이후 불교계 독립운동이 분석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김경환(金景煥, 1894~?)을 비롯해 박달준(朴達俊, 1894~1965)·김봉률(金奉律, 1897~1949) 등이 전개한 3·1운동과 1920년대 한족회의 독립운동 자금 모금 운동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러한 연구 성과에서 불교계의 3·1운동에 대한 연구 시각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불교계 3·1운동을 평화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연구 시각⁴⁾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그것은 김경환·박달준·김봉률 등의 3·1운동이 1920년대 남만주(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 곧 신흥무관학교·한족회 등 독립전쟁노선으로 계승된 점을 고려할 때 그렇다. 곧 불교계의 독립운동도 3·1운동 이후 1920년대 독립운동과 긴밀히 연관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에 주지하면서 일제강점기 도리사(桃李寺) 승려 김경환의 독립운동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쉽게도 그의 출생 배경과 성장 과정, 출가 계기와 생활에 대한 정보와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그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가 판결문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특히, 그가 도리사 승려인 것은 판결문의 주소에 '경상북도 선산군 송곡면 도리사'로 명시되어 있고, 직업도 '승려'로 되어 있기에 충분히

3) 본 연구와 연관된 불교계 3·1운동 연구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최화정, 「해인사의 3·1운동」, 『대각사상』 31, 2019.

한상길, 「김룡사의 3·1운동」,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발표자료집, 대한불교조계종불교사회연구소, 2017.

한상길, 「통도사와 표충사의 3·1운동」, 『한국불교학』 89, 2018.

김광식, 「백초월 독립운동의 성격」, 『전자불전』 19,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2017.

김일수, 「동화사 지방학림의 3·1운동」, 『대각사상』 31, 2019.

4) 김순석, 앞의 글, p.178.

확인된다.⁵⁾

그런데도 그의 독립운동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전혀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그의 독립운동이 규명되지 않은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 그에 따라 이 글은 도리사 승려 김경환의 독립운동을 최초로 규명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김경환의 독립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 나아가 독립운동 선상에서 불교계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할 것이다. 이는 한국 근대불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런 점을 주지하면서, 일제강점기 도리사 승려 김경환의 해인사 3·1운동과 1920년대 초 한족회 독립운동 자금 모금 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전민족적 항일운동인 3·1운동이 1920년대 독립전쟁 노선으로 계승된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새롭게 규명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김경환의 독립운동을 통해 불교계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은 무척 기대되는 바이다.

이 글의 분석을 위해 김경환의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해인사 3·1운동과 한족회 독립운동 자금 모금 운동,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그 속에는 판결문 및 각종 수형 기록 등이 포함될 것이고, 당시 발행된 신문과 잡지 등도 활용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박달준의 자필 이력서도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II. 1910년대 한국불교와 도리사 승려 김경환

도리사는 구미의 태조산에 세워진 사찰로서 ‘신라불교의 초전 법륜지’이다. 예전에 구미는 선산에 속해 있었으나 지금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선산이 구미에 속해 있다. 도리사는 고구려의 승려 아도화상이 창건한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 「대정(大正) 8년 형제 215호」, 1918년 9월 4일.

사찰로 알려져 있고, 창건 시기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다. 곧 신라 미추왕, 눌지왕, 법흥왕 등 달리 기록되고 있다. 그 가운데 창건에 대해서는 신라 법흥왕대로 보고 있는 도리사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⁶⁾ 그것은 아도화상이 신라 법흥왕 대 신라의 불교 공인 및 이차돈의 순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에서 기인한다. 아도화상이 도리사를 창건한 구체적 시기는 아도화상이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 포교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세운 절로 알려져 있다.

또 아도화상은 도리사를 비롯해 흥륜사와 백제 땅에도 많은 사찰을 창건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도리사 이름의 유래는 이러했다. 곧 아도화상이 수행처를 찾기 위해 다니던 중 겨울인데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고 사찰을 세우기에 좋은 땅임을 알아 이곳에 모래 장자의 시주를 절을 짓고 도리사라 하였다는 것이다.

도리사는 근대 이후, 특히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일제는 한국을 식민 지배하는 가운데 1911년 6월 3일 제령 7호로 7개 조의 사찰령을 제정·반포하였다. 사찰령은 일제가 한국불교를 단 일종파로 만들어 총독의 통제 아래 두어 억압하려는 식민지 불교 정책이었다.

사찰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1조에 ‘사찰을 병합, 이전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거나 2조에 ‘사찰의 기지(基址)와 가람은 지방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전법(傳法), 포교(布教), 법요집행(法要執行)과 승니 지주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상의 맥을 이루고 있는 불교의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총독부 아래 전체 사찰을 통제하고, 종교 활동까지 철저히 억압하려는 왜곡된 종교 정책이었다. 3조에는 ‘사찰의 본·말 관계 승규법과 기타 필요한 사법(寺法)은 각 본사에서 정하여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사찰 운영을 총독의 통제 아

6) 주수완, 「신라불교의 승부사, 아도화상」, 『불광』 588, 2023.10, pp.32-45.

래 두려는 의도였다. 5조에는 사찰의 재산권 행사를 총독부의 허가 아래 두었다. 마지막 조항 7조는 ‘본령에 규정하는 것 외에 사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 총독이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일제는 한국불교를 총독부의 통제 아래 두어 식민정책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같은 해 7월 8일에는 사찰령의 세부 사항을 담은 전문 8조의 사찰령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주로 사찰령 4조의 ‘사찰에는 주지를 두어야 한다’는 것의 세부 사항으로 주지에 관한 사항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사찰령 시행세칙 2조에는 전국 30여 개 사찰을 명시하고, 동 사찰의 주지는 조선 총독에게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⁷⁾ 30개 사찰 이외의 경우 주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장관에게 신청하여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일제는 사찰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한국불교를 30본산으로 편성하였다.⁸⁾ 30본산의 주지는 총독의 승인 아래 주지로 취임하여 본·말사법을 통해 각 말사를 운영케 하였다. 해인사의 경우 1912년 10월 4일 마곡사·은해사와 함께 총독의 인가를 받았다.⁹⁾ 이때 해인사의 주지는 1911년 12월 7일 주지로 취임한 이회광(李晦光, 1862~1933)이었다. 그는 사찰령 시행규칙에 따라 3년 임기의 주지를 1915년 3월 6일, 1918년 8월 8일에 걸쳐 총독 인가를 받았다.¹⁰⁾ 이회광은 1912년 6월에 1대 30대본산주지회의원 원장으로 선출되었고, 1914년에도 3대 원장으로 선출되어 일제 초기 조선 불교계의 종권을 장악하였다.¹¹⁾ 그

7) 봉은사, 봉선사, 법주사, 위봉사, 대흥사, 송광사, 통도사, 폐엽사, 영명사, 보현사, 유점사, 석왕사, 용주사, 전등사, 마곡사, 보석사, 백양사, 선암사, 해인사, 범어사, 성불사, 법흥사, 건봉사, 월정사, 귀주사 등이었다.

8) 1924년 11월 20일 조선총독부는 사찰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래 30본산에서 화엄사를 포함한 31본사제도로 변경하였다.

9)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상, 서울 신문관, 1918, pp.628-674.

10) 임혜봉, 『친일승려 108인』, 청년사, 2005, p.679.

11) 임혜봉, 위의 책, p.7.

는 1912년 7월 30일 일왕 메이지(明治)가 사망하자 49재를 실행했을 뿐 아니라 메이지(明治)의 국장에 조선불교를 대표해 직접 참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는 실행되지 않았고, 1912년 9월 13일 용산 연병장에서 거행된 봉도식에 참배하였다.¹²⁾

이회광은 30대 본산주지회의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1914년 하반기에 유생들과 함께 친일 외곽 단체로 불교진흥회 조직에 착수해 같은 해 11월 25일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1917년 2월 이완용·권중현 등이 조직한 불교옹호회로 대체되었다. 그 사이 1915년 1월 이회광이 주도한 30대 본산주지회의원은 용주사 주지 강대련에 의해 30본산연합제규(三十本山聯合制規)가 제정되고, 이를 통해 30대본산연합사무소가 조직되었다. 같은해 3월 1일에 조선총독부의 정식 인가를 받았고, 1922년 1월까지 불교계의 비상시 최고 의결 기구로 기능하였다. 사찰령과 그 시행규칙 및 사법은 조선 총독 정치의 산물이었듯이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30대본산연합사무소도 식민지 불교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 단체였다. 이회광과 강대련의 종권 다툼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이후 30대본산연합사무소는 1922년 5월 27일 조선 불교 중앙교무원으로 조직이 변경되고, 1924년 4월 재단법인이 되었다.

1915년 4월 무렵 강대련이 장악한 불교계에서는 같은 해 1월에 열렸던 30본산 주지 총회의 결정사항, 곧 서울에 조선불교중앙학림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학림 설립 위원을 선출하였다. 그 위원장으로 강대련이 선출되었다.¹³⁾

이처럼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래 조선 불교는 일제의 종교정책에 따라 일본화가 추진되고, 동시에 불교의 친일화가 진행되었

12) 『불교』 신24집, 1940년 6월 1일; 임혜봉, 앞의 책, p.60에서 재인용.

13) 『매일신보』 1915년 4월 3일, 「불교중학 설립」. 동화사 주지 김담파, 백양사 주지 김유웅, 범어사 주지 오성월, 송광사 주지 이설월, 통도사 주지 김구하, 석왕사 주지 김윤하, 봉은사 주지 라청호 등과 함께 상치원(常置員)으로 선출되었다.

다. 특히, 해인사의 주지 이회광은 불교의 친일화에 전면에 나섰다. 이러한 1910년대 불교계의 상황 속에서 불교계 내 민족의식을 가진 승려들에 의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김경환은 1894년 5월 2일 경북 상주군 장천면 용담동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본적은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면 금산리 1304번지이다. 하지만 그의 집안 배경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¹⁴⁾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조사가 필요하다. 여하튼 김경환은 10대의 어린 나이로 상주에서 멀지 않은 선산의 도리사로 출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경환은 불교의 깨달음을 구하고, 대중들에게 불교를 전파하는 승려 생활을 위해 본사인 해인사(海印寺)가 운영하던 지방학림에 들어갔다. 곧 불교 중등 과정의 지방학림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김경환도 박달준처럼 지방학림에 들어가기 전에 해인사가 운영하던 보통학교에서 수학했을 가능성도 있을 듯한데,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 그것은 불교계가 30본사에 보통학교를 설립하고, 그 졸업자를 지방학림에서 3년간 수학시켜 졸업자를 중앙학림에 입학하게 하는 교육체계를 세운 것에서 연관해 볼 수 있다.¹⁵⁾

김경환은 해인사 지방학림의 강사 백초월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전국 경향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 승려들과 도반이 되어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혔다. 이 계기가 그의 삶에서 젊은 불교 승려로서의 생활에 더해 독립운동가로 변신하게 되는 인생 전환기로 작용하였다.

14) 이 글을 준비하면서 구미시에 김경환의 호적 사항을 열람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현재로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상황이다. 조만간 그의 호적 관련 정보가 확인되길 기대한다.

15) 김중대, 「불교 중립 중등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석사학위 논문, 1981, pp.20-22.

Ⅲ. 도리사 승려 김경환의 3·1운동

1. 중앙학림의 3·1운동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저항은 1910년 10월 해인사 주지 이회광에 의해 추진된 조동종 맹약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대한제국 시기 공권력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원종(圓宗)이 일본 조동종의 지원을 받아 일제 당국에 승인을 시도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 내용은 호남 불교계에서 제기한 것으로서 우리 불교의 자존심을 팽개친 비굴한 조약이라는 비판이었다.¹⁶⁾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임제종 출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제의 탄압으로 임제종 출범은 좌절되었으나 사찰령 이후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그 노력은 전민적 항일운동인 3·1운동으로 확대 계승되었다.

1919년 1월 한용운은 천도교의 최린을 찾아 독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만세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백용성을 민족대표에 포함했다. 그 뒤 유교계의 참가를 위해 광종석을 만났으나 성사되지는 못하였다.¹⁷⁾ 한용운은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을 작성하였다.¹⁸⁾ 한용운은 2월 하순 범어사를 방문하여 범어사 주지 오성월을 비롯해 이담해, 오리산 등을 만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고 전해진다.¹⁹⁾

한용운은 만세독립운동 하루 전날 밤에 중앙학림의 승려들을 유심사로 불러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다. 한용운과 중앙학림과의 관계는 중앙학림 내에 만들어져 있던 유심회와 연관되었다. 유심회는 1918년 늦가

16) 김광식, 「3·1운동과 불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47, 2017, pp.72-74.

김동윤, 「일제하 불교계의 구국운동」 『경주사학』 2, 1983, pp.96-98.

17) 김광식, 「3·1운동과 불교」, p.76.

18) 이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한용운이 작성하였다는 연구에 따른다.

19) 김동윤, 「일제하 불교계의 구국운동 - 3·1운동의 지방 확산과정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2, 1983, p.99.

을 무렵 한용운의 지도를 받으면서, 한국불교의 일본 불교화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²⁰⁾ 이 자리에서 한용운은 ‘서산, 사명의 법손인 것을 기억하여 불교 청년의 역량을 발휘’해 달라며 부탁하면서, 독립선언서를 중앙학림 승려들에게 전달하였다. 유심사를 나온 중앙학림 승려들은 인근의 범어사 포교당에서 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그 주요 내용은 탑골공원 만세운동 참가, 선언서 배포, 시위 후 연고 사찰로 가서 지방 사찰의 만세운동 확산 등이었다.

그에 따라 중앙학림의 승려 김봉신²¹⁾은 경남 합천의 해인사로 가서 지방학림의 김봉를 만나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해인사 지방학림의 승려들로 하여금 만세독립운동을 전개하도록 권유하였다. 동화사 지방학림의 권청학이 합천 해인사의 지방학림 승려들과 함께 만세독립운동 계획에 동참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나²²⁾ 그에 대한 정황은 김경환의 판결문이나 동화사 지방학림의 대구 동문시장 만세운동의 판결문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권청학의 경우 동화사 지방학림의 승려로서 해인사 지방학림과 함께 3·1운동을 전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2. 김경환의 해인사 지방학림의 3·1운동

1910년대 해인사는 64개의 말사를 직할로 두고 있었고, 소속 승려의 수도 약 1,000명 정도로 대찰이었다. 또 해인사에만 비구 200여 명, 비구니 150여 명 이상의 승려가 수행하고 있었다.²³⁾ 이러한 해인사의 교

20) 김동윤, 앞의 글, p.100.

21) 김봉신은 불교중앙학림의 학승으로 유심회 회원이었고, 3·1운동 직후인 1919년 11월 15일 중국 상하이(上海)에 거주하고 있던 승려들과 함께 대한승려연합회를 조직하였다.

22) 김광식, 앞의 글, pp.78-79.

23) 채정복 편, 「청춘은 아름다워라」, 『효당최범술문집』 1, 민족사, 2013, p.536.

세는 당시 조선불교의 10분의 1 규모였다.²⁴⁾ 경북의 경우 선산의 도리사를 비롯해 김천의 청암사와 직지사, 성주의 선석사 등이 해인사의 말사였다.

해인사는 본·말사 승려를 위해 해인사립보통학교, 지방학림, 강원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해 운영하였다. 먼저, 해인보통학교의 경우 1919년 해인사 3·1운동과 1920년대 독립전쟁노선의 독립운동을 벌였던 박달준은 자신의 이력서에 1916년 3월 해인보통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록하였다.²⁵⁾ 해인보통학교는 3·1운동 이후인 1920년대에도 운영되고 있었다. 그것은 1921년 5월에 해인보통학교가 운동회를 개최하거나²⁶⁾ 또 1922년 5월 합천청년회연합회 주최의 강연회가 해인사 구광루(九光樓)에서 열렸을 때, 해인보통학교 학생 일동이 합창을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 기사에서 확인이 된다.²⁷⁾

지방학림의 경우 1914년 2월에 발행된 『해동불교』 제4호에 실린 ‘본산 본말사별 학생수 일람’과 1918년 1월의 『조선불교총보』의 ‘삼십본산부(三十本山付) 말사승니급 학생, 신도수조(信徒數調)’를 통해 알 수 있기도 하다. 효당 최범술의 기억에 따르면 당시 해인사 지방학림은 중등 교육과정 4년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약 90명에서 100명 정도의 승려들이 있었고, 강사로 승려 백초월(白初月)과 김포광(金包光)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²⁸⁾ 여기서 언급된 중등 교육과정에 대해서 박달준은 일반 중등과 불교 중등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다.²⁹⁾ 일반 중등이

최화정, 「해인사의 3·1운동」, 『대각사상』 31, 2019.6, p.23에서 재인용.

24) 채정복 편, 「3·1운동과 해인사」, 『효당최범술문집』 1, 민족사, 2013, pp.388-389. 최화정, 위의 글, p.23 재인용.

25) 박달준, 「박달준 자필이력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자료번호 1-001553-000.

26) 『동아일보』 1921년 5월 23일, 「해인보교운동회」.

27) 『동아일보』 1922년 5월 15일, 「합천청년회연합강연」.

28) 최화정, 앞의 글, pp.25-27.

29) 박달준, 「박달준 자필이력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자료

란 공립의 고등보통학교 과정으로 보이고, 불교 중등이 지방학림의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1918년 10월 중순 한용운이 해인사지방학림에서 ‘청년의 길’, ‘선(禪)과 인생’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 이에 해인사 지방학림의 학생들은 당시 불교가 식민지 현실에서 처한 상황과 과제, 항일정신에 영향을 받은 받았을 것이다. 김경환도 이때 해인사 지방학림의 중등 불교 과정의 학생으로 공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인사에 3·1운동의 소식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해인사 승려로서 불교 중앙학림에서 공부하고 있던 김봉신이 해인사의 김봉률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이를 김장운(金章允)·박덕운·손덕주 등과 공유하면서였다. 그런데 이 밖에도 최범술에 따르면 해인사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된 경로는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⁰⁾ 첫째, 쌍계사에서 온 송복만이 1919년 3월 초 서울에 다녀오면서 한용운의 지휘를 받던 쌍계사 출신 서울 유학생 도진호로부터 전달받아 오게 된 것을 강제호를 비롯해 여러 학생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쌍계사에서 서울 불교중앙학림에 휴학 간 김용기로부터 박근섭에 전달된 경로이다. 셋째, 최범술이 조카인 최원형이 당시 경성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에 최범술에게 전달한 경로이다.

해인사 지방학림에서는 1919년 3·1운동 직후부터 만세독립운동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³¹⁾ 해인사와 학교의 등사관을 이용해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3월 7일 해인사 팔만대장경 장경각 뒷산 기슭에서 구체적인 만세독립운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듯 해인사 지방학림에서도 3·1운동이 펼쳐질 상황이었다.

1919년 3·1운동이 전국을 휩쓸고 있을 때, 3월 31일 함께 공부하던 백성원(白聖元)·홍태현(洪泰賢) 등과 지방학림 기숙사에 모여 해인사

번호 1-001553-000.

30) 채정복 편, 『3·1운동과 해인사』, 『효당최범술문집』 1, 민족사 2013, pp.306-397. 최화정, 앞의 글, pp.30-31에서 재인용.

31) 최화정, 앞의 글, pp.31-34.

인근 마을 주민을 선동해 조선독립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구체적으로는 3월 31일 저녁에 펼쳐진 연극공연을 관람하고 돌아오는 도중의 군중들을 선동해 만세독립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3월 31일 오전 11시 무렵 해인사 홍하문(紅霞門)밖에 200여 명의 학생과 군중이 만세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오후 1시 해인사 주재소로 몰려가 만세독립운동을 이어갔다. 김경환과 만세운동을 계획한 승려들은 3월 31일 저녁 11시 무렵 해인사 앞 도로에 백 수십 명의 군중과 함께 재차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³²⁾

당시 도리사 승려로 해인사 지방학림에서 수학하고 있던 김경환은 일찍부터 조선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가 해인사 3·1운동으로 인해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때나 검사국으로 송치된 후 진행된 조사에서도 조선독립에 대한 희망을 일찍부터 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에 따라 김경환의 해인사 3·1운동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의 판사도 김경환이 “조선독립에 희망을 이룰 것을 희망”하여 만세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에 따라 김경환은 1919년 9월 4일 열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 재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³³⁾ 그 뒤 대구감옥에서 옥고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성원은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열린 재판에서 기소증지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³⁴⁾ 그런데 백성원은 다시 1919년 5월 2일 김천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열린 재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홍태현은 황해도 해주 석동면 신광리 출신으로 해인사 지방학림에 유학하고 있던 승려였다. 해인사 3·1운동 당시 그의 나이는 23세로 1896년생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해주에는 신라

3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 「1919년 형공 215호」, 1919.9.4.

3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 「대정(大正) 8년 형제 215호」, 1918년 9월 4일.

34) 국가기록원 소장, 「형사사건부」.

문무왕대에 창건된 신광사(神光寺)가 있었다. 신광사는 고려의 원간섭기 말년에 대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조선 세종대에는 조선이 공인한 36사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었다. 또 신광사에는 오층탑과 무자비(無字碑)가 세워져 있다. 최근에 단원 김홍도가 그린 ‘산사귀승도(山寺歸僧圖)’의 사찰이 해주 신광사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³⁵⁾ 다만, 홍태현이 신광사의 승려인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신광사는 절터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태현은 1919년 6월 2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열린 재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1919년 6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³⁶⁾ 그 뒤 홍태현은 대구감옥에서 옥고를 겪었다.

그밖에 『독립운동사』 제9권(학생독립운동사)에서는 김성구(金聖九)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김경환의 판결문에는 김성구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국가기록원 형사사건부에 김성구(金聖九)라는 인물이 1919년 5월 21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의 소의로 입건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료가 있다. 다만, 이 인물이 『독립운동사』 제9권에 언급된 김성구와 동일 인물인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독립운동사』 제9권의 기록을 존중한다면 3월 31일 저녁 11시에 전개된 해인사 3·1운동에는 4명이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해인사의 3·1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최화정)에서는 김경환을 비롯한 백성원·홍태현·김성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런데도 김경환의 3·1운동은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 해인사 3·1운동이라 함은 김경환 등이 전개한 만세독립운동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경환 등의 해인사 3·1운동은 해인사 3·1운동을 새롭게 발굴하는 계기가 된

35) 『동아일보』 2018년 9월 19일, 「단원 ‘산사귀승도’의 사찰은 해주 신광사」.

36) 대구복심법원, 「홍태현 판결문」, 1919.6.28.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세 사람의 재판 날짜와 재판 관할이 다르다는 것이다. 곧 백성원은 1919년 4월 28일, 홍태현은 1919년 6월 2일, 김경환은 1919년 9월 4일로 재판 날짜가 달랐다. 또 김경환과 백성원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 홍태현은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렇듯 세 사람의 재판 날짜와 장소가 달랐던 것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해인사 3·1운동을 일으킨 직후에 세 명이 동시에 일경에 체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곧 3월 31일 해인사 3·1운동 전개 후 세 사람은 일경의 체포를 피해 해인사를 떠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에 따라 해인사 3·1운동에 대한 일경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검거 일자와 장소가 달랐기에 재판 장소와 재판 일자도 달랐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V. 승려 김경환의 한족회 독립운동자금 모금 운동

1. 중국 남만주 독립운동과 한족회

김경환이 1920년 전개한 독립운동 자금 모금 운동에는 남만주(서간도) 지역 독립운동 단체와 연계되어 있었다. 박달준은 3·1운동 직후 서울에서 모종의 연락을 받고 김봉률·이창욱(李昶旭)·이덕진(李德珍)·김성수(金成秀)·이종인(李宗仁)·손덕병(孫德炳)·김양오 등과 함께 상경하였다.³⁷⁾ 이때 불교계와 국외 독립운동세력과 연결 고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달준 등은 임시정부의 권유를 받고 중국 통화시(通化

37) 박달준, 「박달준 자필이력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자료번호 1-001553-000. 이 가운데 김성수와 손덕병은 청산리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의 서술에서 특별한 근거 제시가 없으면 박달준의 자필 이력서를 참고한 것이다.

市)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 소재 임정 제1군정서에 도착해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해 군사 훈련을 받았다.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5월 남만주(서간도) 유하현에 안동의 이상룡·김동삼 등이 설립한 신흥강습소가 1919년 5월에 개칭한 것이었다.³⁸⁾ 또한 신흥무관학교는 생도 모집의 한 방법으로 국내 청년의 입교를 활용하였다. 그에 따라 박달준 등이 입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뒤 1919년 11월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 훈련을 마친 뒤 교성대(敎成隊)에 편입되어 1920년 3월 1일까지 고등 군사교육을 이수하였다. 이어 유하현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다가 청산리전투를 계기로 일본 관동군이 남만주를 압박하자 국내로 들어와 독립운동 자금 모금을 전개하였다. 실제, 1920년 여름부터 일본군이 남만주에 대거 출동하여 독립운동 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고, 독립운동 세력은 부상하거나 사망으로 흩어졌다.³⁹⁾

주목되는 것은 김경환이 모금한 독립운동 자금을 한족회(韓族會) 사관장 최명수(崔明洙, 1881~1951)에게 보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족회는 어떤 독립운동 단체일까. 한족회는 1919년 4월 부민단, 신흥무관학교 등 남만주(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기존의 조직을 확대 개편해 조직한 단체였다. 동시에 군사 조직으로 군정부(軍政府)를 편성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군정부’라는 명칭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임시정부 산하의 서로군정서로 변경할 것을 요청해 오자 1919년 11월 정식으로 서로군정서로 다시 출발하였다. 서로군정서는 군자금 모집·선전활동·군사활동에 주력하는 가운데 군자금 모집은 주로 한족회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실제로 한족회, 서로군정서, 신흥무관학교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⁴⁰⁾ 한족회는 기관지로 『한족일보』(韓族日報)를 발행하였다.

38) 장세운,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사』, 선인, 2021, pp.71-81.

39) 장세운, 앞의 책, pp.96-98.

40) 황민호·홍선표,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경인문화사, 2008, pp.36-40.

또한 최명수는 충북 청원 출신으로 기독교 전도사로 활동하던 중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중국 남만주로 망명해 신민회 인사들과 함께 서간도 독립운동기지 개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11년 4월 통화시(通化市)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에 경학사(耕學社)를 설립하였는데, 경학사가 부민단(扶民團)으로 바뀐 뒤 단총에 선임되어 부민단의 실무를 맡았다. 1919년 부민단이 한족회로 변경된 뒤 내무사 소속인 검무국장, 군무사 소속인 현병과장 등을 맡았으며,⁴¹⁾ 또 사(判)장을 맡았다. 이에 김경환을 비롯한 해인사 지방학림 승려들은 3·1운동 이후 남만주(서간도) 지역 독립운동 세력과 밀접한 연관 관계 속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2. 한족회 독립운동자금 모금 운동

해인사 3·1운동을 전개한 김경환은 6개월의 대구감옥에서 수형을 마친 뒤 해인사 3·1운동을 전개한 지방학림의 승려들과 다시 독립운동을 이어 갈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1920년 9월 무렵 김경환은 해인사에서 해인사 지방학림 출신으로 중국 남만주에 망명하여 무장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귀국한 박달준·김봉률·김장윤·우민수(禹敏秀) 등을 만났다. 김경환은 그들을 통해 무장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여 한족회 사장(司長) 최명수(崔明洙)에게 보낼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김경환은 그들과 함께 남만주 군정서 명의의 영수증을 만들어 경남북의 사찰을 대상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코자 하였다.

김경환은 박달준·우민수 등과 함께 경상북도의 각 사찰을 순회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김경환은 1920년 10월

41) 국가보훈부, 「이달의 독립운동가, 강제하·이용해·백남준·최명수」, 2022년 8월.

초부터 10월 15일 무렵까지 박달준·우민수와 함께 경상북도 문경군 김룡사(金龍寺)·대승사(大乘寺)·의성군 고운사(孤雲寺)·예천군 용문사(龍門寺) 및 상주군 내서면 남장사(南長寺) 등을 찾아다니며 승려들에게 독립자금 제공을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김경환 일행은 김룡사·대승사·고운사로부터 약 40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였다.⁴²⁾ 김봉률·김장윤 등은 경상남도의 사찰을 대상으로 독립운동 자금 모금운동을 벌여 대봉사와 범어사에서 약 30원 내지 50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였다.⁴³⁾

이처럼 독립운동 자금 모금 운동을 벌이던 김경환은 종로경찰서 경찰에 검거되어 1921년 8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박달준과 김봉률 등도 종로경찰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뒤 1921년 5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⁴⁴⁾ 또 김장윤은 일제의 검거를 피해 지내다가 1927년 10월 9일 경남 산청군에서 종로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산청경찰서 경찰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⁴⁵⁾ 당시 언론은 독립운동 자금 모금 운동을 벌인 김경환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을까.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경환(28)은 원래부터 조선독립을 희망하고 재작년 3월 이래로 누차 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작년 9월 무렵에는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박달준 외 3명과 상의한 후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여 만주에 있는 한족회 사판장에게 바치고자 동지 김봉률 김장윤 등은 경남 각 사찰로 돌아다니며 다수한 금전을 모집하였으므로 박달준 김봉률은 모두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을 마치고 동원 공판에 부치었다더라.⁴⁶⁾

42) 경성지방법원, 「김경환 판결문」, 1921년 8월 24일.

43) 『조선일보』 1921년 3월 19일, 「독립을 운동하던 승려 등의 공판」.

44) 경성지방법원, 「1921년 형공 제229, 340호」, 1921년 5월 25일.

45) 『동아일보』 1927년 10월 15일, 「종로서에 검거 승려 군자원」.

46) 『동아일보』 1921년 8월 10일, 「사찰로 돌아다니며 군자금을 청구한 김경

김경환(28)은 원래부터 조선독립을 희망하고 제작년 3월 이래로 누차 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작년 9월경에는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에서 박달준 외 3명과 공모하고 독립운동금을 모집하여 만주에 있는 한족회 사관장에게 보내고자 동지 김봉률 김장운 등은 경상남도 각 사찰로 돌아다니면서 다수한 금전을 모집하였으므로 제령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오랫동안 사실을 심리하다가 작일 오전 11시에 태재 판사 대원 검사의 입회하에 징역 1년 6개월로 언도 되었다더라.⁴⁷⁾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김경환이 중국 망명 후 귀국한 박달준과 김봉률에 비해 조사와 재판이 늦게 진행되고, 형량도 높게 선고되었다는 점이다. 실제, 김경환은 박달준과 김봉률 보다 3개월 뒤에 재판이 진행되었고, 형량도 그들에 비해 6개월이 더 많다. 이를 통해 김경환이 경북지역 사찰을 대상으로 한 독립운동 자금 모금 운동에서 더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김경환은 독립운동 자금 모금 운동으로 재판받을 때의 주소는 '경기도 시흥군 북면 본동 10번지'(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로 되어 있었다.⁴⁸⁾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김경환은 경북지역 사찰 대상 독립운동 자금 모금 운동을 벌인 뒤 계속된 독립운동을 벌이기 위해 경기도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박달준의 자필 이력서에 경북지역에서 독립운동 자금 모금 운동을 벌인 뒤 서울에서 비밀리에 각종 선전문을 살포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에서 추측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김경환은 경북경찰부가 아닌 종로경찰서 경찰에게 체포된 것이었다.

환 등 3명 미구에 공판에 부쳐」.

47) 『동아일보』 1921년 8월 25일, 「사찰에서 군자금 모집한 자의 판결」.

48) 이곳은 현재 한강대교 남단에 위치하며 지하철 9호선이 지나는 도로상에 있다. 본동은 조선시대부터 오랫동안 불린 마을 이름으로 노량진의 원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1914년 3월 경기도 구역이 확정될 때 시흥군 북면 본동리로 되었다가 1936년 4월 1일 경성부 본동정이 되었고, 1943년 6월 영등포구에 속했다. 그 뒤 여러 차례 변동을 거쳐 1980년 4월 동작구에 속해 오늘에 이른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도리사 승려 김경환의 3·1운동과 1920년대 전반기 한족회 독립운동자금 모금 운동을 살펴보았다. 김경환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선산의 도리사에 출가하여, 승려 생활을 하던 중 도리사의 본사인 해인사에서 운영하던 지방학림에서 불교를 익혔다. 해인사 지방학림에서 공부할 때, 그는 민족문제에 있어서 이미 한국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강하고 품고 있었다. 1919년 전민족적 항일운동인 3·1운동이 전국을 강타할 때, 그는 불교계의 3·1운동이 전국 사찰로 파급되어 가는 과정에서 해인사 지방학림 승려들과 함께 1919년 3월 31일 해인사 3·1운동을 일으켜 3·1운동의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김경환은 복역을 마친 후 해인사로 다시 돌아가 승려 생활을 이어가던 중 3·1운동 직후 서울을 거쳐 중국 남만주(서간도)로 망명한 승려 박달준·김봉률이 귀국하자 함께 한족회의 독립운동 자금 모금 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그는 경상북도 사찰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종로경찰서 경찰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뒤 경성지방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때 한족회는 남만주(서간도)의 독립운동 근거지 마련 운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독립운동 방략으로 독립전쟁노선에서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김경환의 1920년대 초 독립운동방략 역시 독립전쟁 노선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김경환은 전민족적 항일운동인 3·1운동의 참여를 통해 1920년대 초 독립전쟁노선으로 전환해 나간 독립운동가였다. 특히, 그의 독립운동이 3·1운동에 이어 독립전쟁노선으로 전환해 나간 불

교계 독립운동의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불교계의 독립운동이 국외로 나간 한국 독립운동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도리사 승려 김경환의 독립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 김경환의 독립운동을 한 걸음 더 깊게 규명할 수 있길 기대한다.

김경환은 독립운동을 전개한 명백한 독립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의 독립운동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공인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조만간 독립운동가로 서훈을 받아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는 일제강점기 불교계 독립운동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자 한국 독립운동의 다양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불교진흥회월보』
 『불광』
 『조선총독부관보』, 국가기록원 소장, 「형사사건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 「1919년 형공 215호」(김경환 판결문), 1919.9.4.
 대구복심법원, 「홍태현 판결문」, 1919.6.28.
 경성지방법원, 「김경환 판결문」, 1921.8.24.
 경성지방법원, 「1921년 형공 제229, 340호」, 1921.5.25.
 박달준, 박달준 자필이력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상, 서울 신문관, 1918.
 동아일보사,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폭도사편집자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3권, 1971.
 임혜봉, 『친일승려 108인』, 청년사, 2005.
 장세운,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사』, 선인, 2021.
 황인호 · 홍선표, 『3·1운동 직후 무장투쟁과 외교활동』, 한국독립운동사편
 찬위원회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경인문화사, 2008.
 김중대, 「불교 종립 중등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
 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 논문, 1981.
 박찬승, 「3·1운동의 사상적 기반」, 『3·1 민족해방운동사연구』, 청년사, 1989.
 이기운, 「근대기 승가의 교육체계 변혁과 자주화운동」, 『불교학보』 48, 2005.
 김광식, 「3·1운동과 불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47, 2017.
 김순석, 「3.1운동기 불교계의 동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2019.
 _____, 「3·1운동기 한국 불교계의 역동성과 현재적 반성」, 『불교학연구』 62,
 2020.
 한동민,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항일운동 연구 동향과 과제」, 『선문화연구』
 창간호, 2006.
 김동윤, 「일제하 불교계의 구국운동 - 3·1운동의 지방 확산과정을 중심으로

로], 『경주사학』 2, 1983.

김일수, 「3·1운동 전후 독립에 대한 인식과 독립운동 - 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38, 2018.

_____, 「동화사 지방학림의 3·1운동」, 『대각사상』 31, 2019.

최화정, 「해인사의 3·1운동」, 『대각사상』 31, 2019.

국가보훈부, 「이달의 독립운동가, 강제하 · 이용해 · 백남준 · 최명수」, 2022.8.

Abstract

Kim Kyung-hwan's Independence Movement, a Buddhist Monk at Dorisa Temple(桃李寺) in Japanese Colonial Era

Kim, Il-su
(Professor, Kyungwoon Univ)

Kim Kyung-hwan, a native of Sangju, Gyeongsangbuk-do, went to Dorisa Temple in Seonsan(善山) and learned Buddhism in a local school forest operated by Haeinsa Temple(海印寺), the headquarters of Dorisa Temple, while living as a monk. When the March 1st Movement(3·1운동)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he and the monks of the local school forest of Haeinsa organized the March 1st Movement on March 31, 1919, contributing to the spread of the March 1st Movement. After completion of Bok Station, he returned to the Hae-in-ju, who returned to the independent exercise fund fund fund fund fund fund fund fund fund fundraising campaign, and collect the main temple. After suffering from imprisonment, he served as the governor of Sudasa Temple from 1924 to 1931.

As such, Kim Kyung-hwan, a Buddhist monk at Dorisa Temple in Japanese colonial era, was an independence activist who switched to the independence war route in the early 1920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March 1st Movement, a national anti-Japanese movement. In particular, it is remarkable that it showed the case of Buddhism-based independence movement that turned into independent war node. In addition, it is worth noting that the Buddhist independence movement is in line with the flow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utside the country. In this regar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Dorisa monk Kim

Kyung-hwan's independence movement is in line with the flow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Key words

Dorisa Temple(桃李寺), Buddhist monk, Haeinsa Temple a local school forest(해인사 지방학림), The March 1st Movement at Haeinsa Temple (해인사 3·1운동), Han Chinese Society(韓族會), the War of Independence route

논문투고일 : '24. 10. 9. 심사완료일 : '24. 11. 27. 게재확정일 : '24. 12. 4.